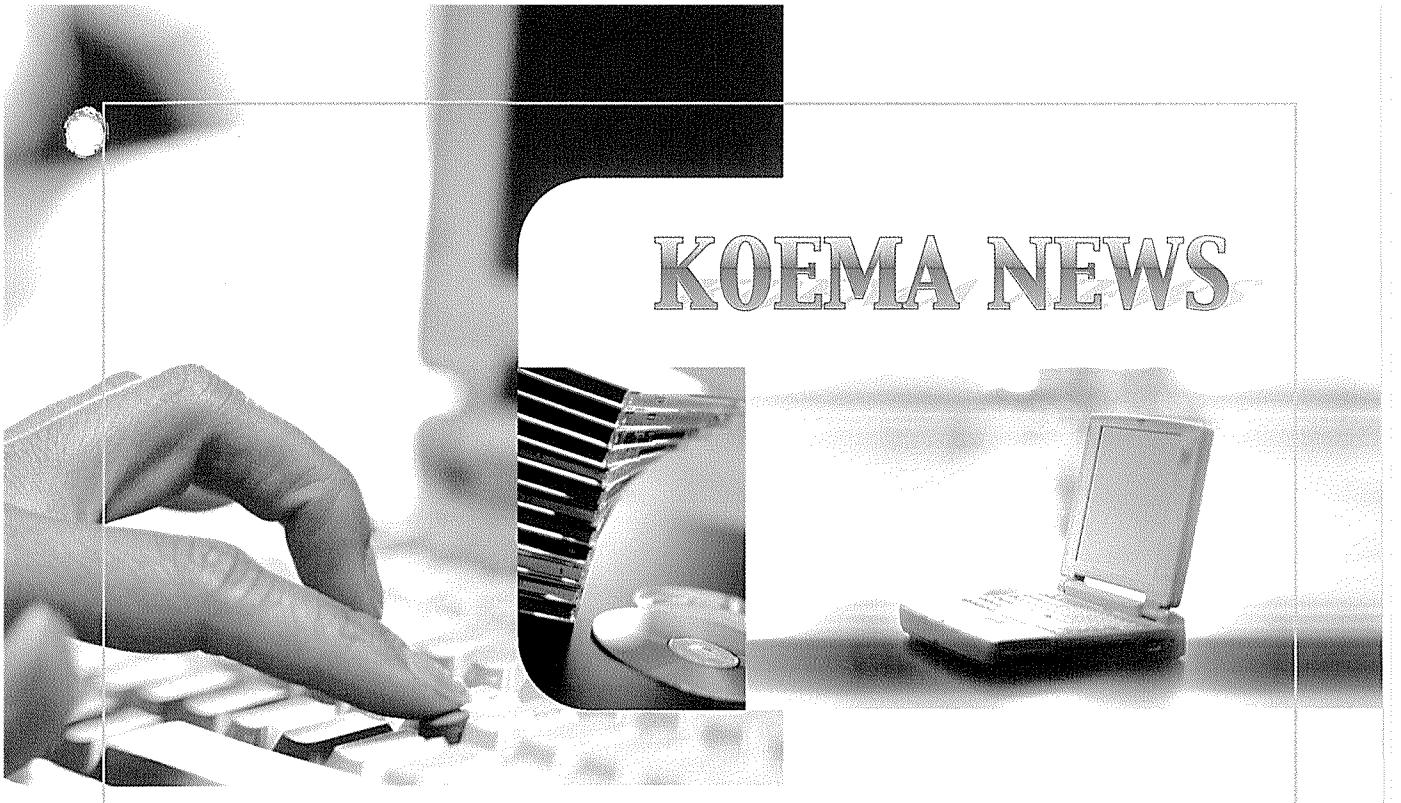


KOEMA NEWS

「중동지역 전기산업 수출촉진단」 파견

진흥회(회장: 김준철)는 지난 5월 7일부터 17일(11일간) 까지 중소기업청 후원하에 대한트랜스 등 11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중동지역 전기산업 수출촉진단(단장:공창덕)」을 파견하여 국내 중전업계의 시장진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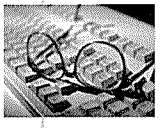
이번 촉진단은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및 이란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지 KOTRA 무역관과 공동으로 시장조사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 · 국가별 관련업체 약 200여개사가 참가하여 약 7천만불 규모의 상담실적을 올리는 등 현지 상담업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상담장에서 직접 물품계약을 맺기도 하고 에이젠트 계약을 맺는 등 우리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최근 중동지역의 유가 상승에 따른 외화수입의 증가가 각종 인프라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져 전력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최근의 반미 · 유럽산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인도 · 중국제품에 대한 품질 및 신뢰성 문제제기 등으로, 향후 우리 중전기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

라 진흥회에서는 정부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하에 현지 전력청 유력인사를 대상으로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2004년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에 초청하여 국내 중전기기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이미지 개선을 통한 거래선 확보 등 향후 다양한 현지진출 방안마련 등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사업지원실 통상전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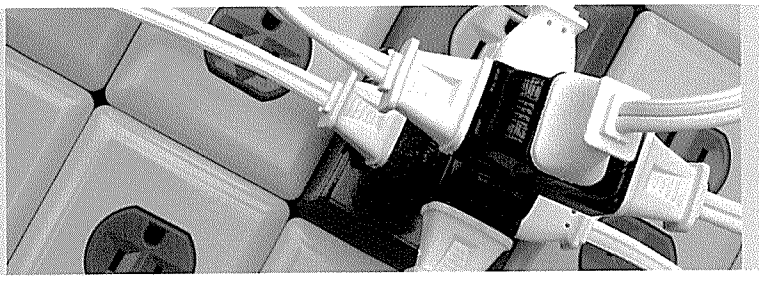
중국「삼협 국제 발 · 송 · 배전 전시회」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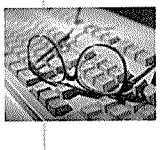
진흥회는 지난 2004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전력공사 후원하에 중국 호북성 의창 삼협공정설비전시장에서 개최된「제3회 삼협 국제 발 · 송 · 배전 전시회」에 (주)비츠로테크 등 9개사를 파견하여 3,000만불의 상담성과를 얻었다

이번 전시회는 '중국장강삼협공정개발총공사' 공정건설부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호북성분회' '중국국제상회호북상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시회로 중국 및 한국 업체 등 4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대 중국 중전기기(전선포함)의 2004년(1월-4월) 교역규모는 937백만불로, 동기 대비 중전기기 총 교역규모인 1,959백만불의 47.8%를 차지한 최대의 교역국으로서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올해 1/4분기중 중국내 24개 성급(省級) 전력망이 제한 송전을 실시하는 등 금년도 중국의 전력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망 수는 전년 동기대비 2개가 더 늘어 금년도 여름철 전력 성수기의 전력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국내 전력기자재의 수요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의 : 사업지원실 통상전시팀, 581-8602)





일본「2004 전설공업전」참가

진흥회는 지난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중소기업청의 후원하에 일본 오사카 INTEX OSAKA에서 개최된「2004 전설공업전」에 국제전기(주) 등 8개사를 파견하여 2,000만불의 상담 성과를 얻었다.

이번 전시회는 일본전설공업협회가 주최하여 26일 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진행되어 일본을 비롯한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141개 업체(399부스)가 참가하였으며, 특히 마츠시다전공, 미쯔비시전기, 도시바, 후지전기 등 일본의 유수의 기업들이 대규모로 참가하여 자사의 신제품들을 홍보하였다.

한편, 김준철 회장은 5월 2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직접 전시장을 방문하여 한국관 참가업체를 격려하고, 개막일인 26일에는 일본전설공업협회 회장 "Hirai Sadao"와 자재위원장 "Jiro Inakoshi"를 만나 오는 11월에 개최되는「SIEF 2004 & KOREA-POWER GEN 2004」전시회에 대한 전설공업회 회원사의 참가를 요청하는 등 양 단체가 주최하는 전시회에 대한 상호협력 및 향후 한 · 일 전기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의 : 사업지원실 통상전시팀, 581-8602)